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본 성경교수에서의 심리학 통합 근거

김남임(충신대학교 기독교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허계형(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논문초록

오늘날 심리학의 이론들은 일반교육뿐 아니라 성경교수현장에서도 주요 교수법으로 자리하고 있다. 성경과 심리학이 공존하는 영역에서는 심리학의 인본주의 세계관과 성경의 진리가 충돌한다. 이로 인해 성경교수현장에는 양측 간 동화에서부터 대립에 이르는 다양한 통합갈등이 혼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경교수에서의 심리학 통합에 대해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명확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그 기초적인 이해로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양상을 제시한다. 둘째, 개혁주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심리학의 성경적 통합 원리를 제시한다. 셋째, 심리학의 주요 연구분야인 ‘동기이론’을 성경적으로 통합하여 유아성경교수현장에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개혁주의 세계관에서는 성경교수에 있어 심리학의 성경적 통합을 지원함을 논한다.

주제어: 성경, 심리학, 개혁주의 세계관, 성경적 통합, 성경교수, 동기이론

I. 서론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와 함께 학문의 영역에도 그 고유성을 허무는 간학문적 통합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대 학문의 연구 성과와 발전에는 학문 간 통합이 크게 기여해왔으며(한춘기, 2012: 174) 기독교분야도 예외는 아니다(오인탁, 2002: 103-104). 역사적으로 기독교학문의 통합 논의는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현대 기독교교육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신학과 심리학과의 통합논의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이어져 왔다(함영주, 2012: 80-82).

이 과정에서 현대사회 실존적 인간이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면서 성경의 진리와 충돌하는 심리학의 세계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에 근거한 성경교수가 아무 여과 장치 없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교회 내 잠식해 들어온 심리학에 대해 기독교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한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로 심리학이 복음전파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인본주의 배경의 심리학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이다(Carter and Narramore, 1979=전요섭 역, 1997: 13-14; Jones and Butman, 1991=이관직 역, 2009: 27). 양 극단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입장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통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함영주, 2012: 75). 이 관점들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가치와 철학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교수학습에서의 심리학 통합 논의에 앞서 올바른 신학적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계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 개혁주의 세계관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직 성경만을 따라 살며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한다는 신조 위에 세워졌다(Wolters, 1985=양성만 역, 2007: 12).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변혁시킨다는 신학으로서 강력한 전통을 지닌다(신국원, 2005: 190-191). 개혁주의의 이러한 정신은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에 성경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실천적 의지에 정신적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다.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통합이란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다. 그 목적은 신학과 학문을 통합하고 그 결과로서 “살림”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신국원, 2002: 14). 이 땅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된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Wolters, 1985=양성만 역, 2007: 99), 이 일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돌이키는 회복으로서 이 세상 진리의 각 영역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잇고 있다(Holmes, 1983=이승구 역, 1985: 195).

기독교심리학자 스탠턴 존스(Stanton Jones)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논의로 통합의 입장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 그는 심리학의 ‘성경적 통합’이란 “모든 실재와 특정 학문의 주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 믿음과 실천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특별계시에 합당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실재와 각 학문 분야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하는 것(Johnson et al., 2010= 김찬영 역, 2012: 155)”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개혁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성경과 학문의 통합은 “그리스도 중심의 통일성”을 띠며,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가 만나는 ‘성육신’이라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 온전히 구현된다(Holmes, 1983=이승구 역, 1985: 193).

특별게시인 성경과 일반은총으로서의 심리학 간 통합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실제 성경교수 현장을 볼 때, 더욱 절실하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경저자가 말하는 중심주제에 시선을 고정하되 성경적 이해에 학습자가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선택한다. 학습자의 발달단계, 이해수준 등을 고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정일웅, 2011: 333-337). 가령, 학습자의 주요 심리적 요인인 ‘동기’는 교수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수학습의 모든 순간은 ‘학습목표 성취’를 지향해가는 과정이므로 이를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동기와 긴밀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경을 배울 때도 동일하며 따라서 성경교수현장에서도 동기를 활용한 방법론적 통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교회학교 유아부서와 같은 경우, 시청각 멀티미디어나 감각적 교재교구를 사용하여 학습자를 성경 텍스트로 이끌어오는 동기유발이 흔히 사용된다. 감각적이며 직관적인 사고특성으로 인해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학습자의 통전적인 삶을 위해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자연의 실물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매체를 사용하신 것이 좋은 모델이다(김희자, 2003: 97-101; 김만형, 2013: 166-174). 이 때, 유아의 심리적 요인인 동기유발에 과도하게 치우친 나머지 유아가 성경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기 보다는 동기유발 자체에 각인된 경우가 많다.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성경적 검증절차와 동기유발에 이어 성경본문으로 안내하는 사례 깊고 세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May et al., 2005: 3-10=강란혜 외 역, 2010: 17-25; 정일웅, 2011: 337-370).

이처럼 교회교육 전문인들이 성경교수에서 심리학 사용에 오류를 보이는 이유는 심리학 통합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통합적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통합의 근거를 이원론적인 분리된 시각에서 접근했기에 성경적 심리학 또는 성경의 심리학에 대해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심리학을 성경적 이해를 갖고 심도 있으면서 포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Johnson et al., 2010= 김찬영 역, 2012: 181). 이러한 이유로 성경교수현장은 심리학에 대해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아니면 거의 인지하지 못할 만큼 동화되어 있다(Jones and Butman, 1991=이관직 역, 2009: 28; 김용욱, 2011: 2). 성경교사들에게는 상당한 혼란이 가중된다. 더 큰 문제는 성경교수가 학습자의 이해와 동떨어지거나 본문말씀에 대해 왜곡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성경교수 현장의 혼란에 대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개혁주의의 정신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혁주의 세계관’에 기초해서 ‘성경교수와 심리학의 통합 근거’를 찾고자 한다. 먼저, 기존에 기독교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갈등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창조·타락·구속’ 이어지는 성경의 진리와 그 정점에 위치한 ‘성육신’에 근거하여 개혁주의의 성경적인 통합의 관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의 주요 연구 분야인 ‘동기이론’을 성경적으로 통합하여 유아대상 성경교수현장에 적용해봄으로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본론

1. 기독교에서의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갈등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현대 심리학은 비교적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그 지식적 모체인 현대주의는 계몽주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 자주적 이성과 개인의 경험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Johnson, 2007=전요섭, 2011; 81). 여기에 실증주의와 과학혁명의 영향을 받아 인간존재연구에도 자연과학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여파로 형이상학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새로운 심리학의 바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태동된 현대 심리학은 자연과학의 실험 기법들을 사용하여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이전 시대 심리학이 이론 인간 본성에 대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설명을 대체하는데 성공하며 20세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Johnson, 2007=전요섭, 2011; 80-87). 실제로 기독교 전통에서 영혼 돌봄의 차원에서 다루어 오던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다양한 인간이해를 보여주었다(Johnson et al., 2010= 김찬영 역, 2012: 36). 여기서 파생된 교수학 이론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기독교인 학자들에게도 양극단의 신학과 심리학,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어느 곳에 좌표를 잡을지에 대한 혼란을 가져왔다(강진구, 2014: 2-3).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교회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행사하고 있다.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리학에 대한 신학의 입장은 다음 두 가지 견해가 대립각을 이룬다. 우선, 심리학을 일반은총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심리학의 각 분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다양한 측면들을 실제로 증명하며 인간 이해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다(Johnson et al., 2010=김찬영 역, 2012:36). 이에 반하는 입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직 이성으로만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심리학의 “종교적 반항심”을 경계하는 것이다(Noebel, 1991=정희영 편저, 2014: 93-95). 각각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조화된다는 입장과 현대 심리학의 근원이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과 서로 긴장하고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내부에는 이러한 갈등과 딜레마가 공존하며 팽팽한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통합접근이 시도되었다(Carter and Narramore, 1979; Collins, 1981; Jones and Butman, 1991). 대표적으로 카터(Carter)와 나라모어(Narramore)는 기존의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대립모델”, “중속모델”, “병행모델”, “통합모델”의 네 가지 모델로 분류하였다. 대립모델은 인본주의 배경의 심리학과 신본주의에 토대를 둔 성경이 본질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대립관계로 단정 짓는다. 중속모델은 신학과 심리학 양자가 어느 한쪽에 편입되는 관점에서 성경을 건전한 심리학 교재로 보게 되는 난점이 있다. 병행모델은 심리학은 과학으로 신학은 개인적 경험으로 간주하며 독자적인 영역은 인정하지만 상호성은 거부한다. 마지막 통합모델은 앞서 통합이 불가능했던 세 가지 모델에 비해 두 분야 간 진리의 통일성이라는 개념 안에서 완전한 통합을 지향한다. 각 모델들은 내부적으로 어느 것을 더 우위에 두는지에 따라 성경 중심인가 혹은 심리학 중심인가로 양분되기도 한다(Carter and Narramore, 1979=전요섭 역, 1997: 91-127). 기독교

1) 단적인 예로, 현대교육을 대표한다는 자유주의자 존 듀이의 ‘경험중심’, ‘흥미중심’ 교육이론을 들 수 있다. 듀이 이론이 일반교육에 풍미하자 그 심리적 기반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교회교육에도 쏟아져 들어왔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자유주의 영역과 복음주의 영역 간 찬반이 뚜렷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며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휩싸였다(이돈하, 2012: 164-165). 듀이가 주장하는 학습의 심리적 원리인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을 통한 인간 성장’은 결국 교육을 통한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상정한다. 이는 인간 세상에 신적인 영역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인류의 영원지속을 주창하는 것임을 분별해야 한다(정희영, 2011: 127).

내에서는 대표적인 통합논의로 ‘종속모델의 심리학적 통합 입장’, ‘대립모델의 성경만을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통합모델의 성경과 심리학의 통합 입장’이 있다. 각각의 입장은 그 강조점과 배타성이 분명하며 또한 이로 인해 내부적인 한계성을 드러내는 등 나름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종속모델의 심리학적 통합 입장’은 성경의 구속적 초자연적 역사를 거부하고 인간중심 신앙과 자연주의를 근간으로 연계한다. 성경보다도 심리학을 더 우위에 놓는 형태로서 성경을 심리학에 종속시킨다(Carter and Narramore, 1979=전요섭 역, 1997: 108-112). 기독교적인 심리학과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은 인간의 죄성을 전제하느냐 부인하느냐라는 출발선에서부터 갈라진다.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은 선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 존재에 불박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어 내려온다는 인간의 원죄에 대해 답을 해줄 수 없다(이관직, 2003: 17-18). 힐트너(Hiltner)가 이 원죄 개념을 “사회적 조절과정”이라고 하며 심리학계에 맞추어 바꾸어버린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안석모 외, 2009: 284-285).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킨 점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심리학적 인간이해가 궁극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받은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고유의 독자성과 본질을 흐리는 종속모델의 통합 형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

둘째, ‘대립모델의 성경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심리학과 상호협조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다. 이 입장의 대표적 성경적 상담학자인 제이 아담스(Jay Adams)와 그를 따르는 상담학자들은 심리학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정확무오한 성경만이 답임을 강조한다. 심리학의 역할 없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인 성경만으로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Adams, 1970: xxi-14=정정숙 역, 1985: 31-52, 강진구, 2014: 5). 따라서 인간 이해의 출발부터 성경에 반하며, 왜곡되고 비틀어진 심리학을 성경과 통합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설 곳이 없다(Adams, 1970: 15-19=정정숙 역, 1985: 53-58). 인간의 마음에 “심리학적 대리인들”을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Bobgan and Bobgan, 1985: 35-39).

셋째, ‘통합모델의 성경과 심리학의 통합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성경이 인간이해에 기여하는 요소와 심리학의 학문적 업적을 존중하여 양측 간 조화와 관련을 시도한다((Johnson et al., 2010= 김찬영 역, 2012: 48). 이러한 기본입장에는 동의하지만 통합의 방법은 통합주의자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콜린스(Collins)는 성경적 기반 위에서 진리 탐구를 위해 인간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Collins, 1981=이종일 역, 1992: 39). 카터(Carter)와 나라모어(Narramore)는 하나님의 특별계시와 심리학의 학문적 성과인 일반계시를 결합하는 것을 목적으로(Carter and Narramore, 1979=전요섭 역, 1997: 152-153). 그리고 존스(Jones)와 버트먼(Butman)은 신학적 교리의 통합이 아닌 신앙과 가치관의 차원에서(Jones and Butman, 1991=이관직 역, 2009: 513)통합을 논하였다. 그런가하면 크랩(Crabb)은 출애굽 사건인 ‘이집트인에게서 강탈한 접근(The Spoiling the Egyptian Approach; 출 12:35-36)’을 통합에 비유하여(출 12:35-36),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던 애굽이지만 그곳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을 정화시켜 성막제사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심리학 수용의 근거로 삼았다(Crabb, 1977: 47-52).

통합주의자들이 보이는 견해는 대체로 다른 통합의 견해에 배타적이거나 양자를 대표하는 단편적인 사건의 결합에 그친다. 또한 종합적인 신학적 근거나 구조화된 이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Jones and Butman, 1991=이관직 역, 2009: 537).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성경과 심리학을 “동등한 자격”으로 놓고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Ackerman, 1997). 성경의 계시는 완전한 계시이

지만 심리학의 일반계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미 왜곡이 일어났다(Wolters, 1985=양성만 역, 2007: 73-74). 순도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계시를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시키는 것은 성경의 계시마저 왜곡되게 해석하고 적용할 여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절대 우위에 두는 개혁주의 세계관에 따른 ‘성경적 통합’이 적절한 해답이 될 수 있다(함영주, 2012: 89).

개혁주의 세계관은 성경과 일반학문이 ‘성경적 통합’을 이루는 것에 대해 힘 있는 설득력을 지닌다. 현대 심리학에 대한 “통합의 가능성과 한계” 설정에서 “구원과 관련된 유일한 진리의 원천”인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함영주, 2012: 87, 91). 즉, 특별계시로서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둔다는 전제 아래 일반은총으로서 심리학의 학문적 업적도 수용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 심리학을 ‘성경의 채로 걸러서 분별력 있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Johnson et al., 2010=김찬영 역, 2012: 156-157. 이처럼 특별계시인 성경의 진리와 일반계시로서 성경에 원류를 둔 심리학의 완전한 통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명백히 드러낼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리스(Harris, 2013: 19)는 성경의 권위는 모든 진리에 대한 주장들이 시험되는 시금석의 기능이라는 “성경적 현실관”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성경적 통합 입장은 ‘대립모델의 성경만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성경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현대사회 모든 전제들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성경적 해석과 적용이 어려운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성경적 가르침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초신자나 비신자들도 있다(Johnson et al., 2010= 김찬영 역, 2012: 45-46). 그러므로 다양한 인간심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성경적 적용을 도와줌과 동시에 성경의 진리가 낯선 이들을 위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와 이를 둘러싼 현상에 대해 그동안 연구 결과들을 성실히 쌓아왔으며 관련 실험자료와 측정도구들을 개발해 왔다(Collins, 1992: 47). 이 점에서 성경적 통합은 성경의 빛 가운데 드러내고 주의 깊게 조명한 심리학의 자원들을 방법론적으로 보완하고 활용할 것을 지지한다(Johnson et al., 2010= 김찬영 역, 2012: 397). 이는 성경적 인간 이해를 부연해주고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도 유용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심리학을 성경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개혁주의 세계관과 이에 기초한 성경적 통합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개혁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심리학의 성경적 통합 원리

개혁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원래의 선한 창조”, “죄로 인한 창조 세계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창조세계의 회복”이라는 세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확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이 원래의 선한 창조계를 회복한다”는 정의로 구체화된다(Wolters, 1985=양성만 역, 2007: 23). 이 회복은 창조계의 모든 영역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동일하다(Wolters, 1985=양성만 역, 2007: 83-84). 곧 성경의 진리인 창조·타락·구속의 역사를 통해 타락으로 잃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되찾는 비전이다(신국원, 2005: 45-46, 154).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 가시화 되었다(신국원, 2005: 154-155, 요 1:14).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십자가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룸으로서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Spykman, 1992=류호준·심재승 역, 2002: 116-117;

신국원, 2005: 129, 글 1:15-20).

창조·타락·구속 진리의 정수인 그리스도의 성육신 원리는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관계 안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Van Til, 1971=이승구 역, 1999: 109-110). 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형태와 특징에 따라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구분된다. 일반계시는 특별계시가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자연과 은총, 세상과 하나님 나라, 자연 질서와 도덕, 그리고 창조와 재창조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 주고 있다(Berkhof, 1941=권수경·이상원 역, 2006: 142). 이 일반계시를 통해 이성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창조세계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Grudem, 1994=노진준 역(상), 2009: 166-167, 롬1:20). 그러므로 지적인 영역 곧 학문의 세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반계시가 왜곡되고, 인간의 삶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갔지만(Wolters, 1985=양성만 역, 2007: 72-74), 하나님은 인간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일반은총을 베풀어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은혜인 특별은총까지 내려주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완성되었다(Grudem, 1994=노진준 역(상), 2009: 16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성취하기 위해 일반계시 속에 살아가던 인간들에게 성육신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완수하셨다(Van Til, 1971=이승구 역, 1999: 220). 인간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눅 4:18-19) 하나님 사랑의 현현으로서 십자가는 이러한 회복과 치유의 결정판이 되었다(엡 2:14, 사 53:5-6, 골 1:22).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창조·타락·구속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중심적인 사건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계시의 권위 아래 일반계시가 통합된 성육신의 원리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중심적 통일성”을 갖게 한다(Holmes, 1983=이승구 역, 1985: 193). 이 통일성의 원류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롬 11: 36).”는 성경말씀에 있다. 화란의 기독교 철학자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의 ‘양상이론’도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창조 세계의 구조를 창조질서이자 우주법 체계인 15개의 양상으로 나누어보았다(김정훈, 2001: 22, 32; Green, 1998=정희영, 2000: 134).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빛줄기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창조세계를 비춘다. 말씀에 부딪친 창조세계는 마치 프리즘처럼 다양한 측면(양상)으로 퍼져나가며 배열된다. 각 영역들은 서로의 상태에 섞일 수 없는 독립적인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궁극적인 실재를 설명하는데 서로가 총체적으로 기능한다(최용준, 2005: 40-52). 그 기능을 통해 각 양상들은 궁극적 실재, 만물의 기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최용준, 2014: 202-205).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은 학문의 성경적 통합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이 모든 양상들은 궁극적 실재인 진리를 독립된 관점에서 연구하는 각 학문의 영역들로 볼 수 있다. 이 창조세계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를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만날 수 있는 좌표들을 도처에 남기신 것이다(김성수, 2013: 21-22). 각 학문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언어를 갖지만 그것은 결국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일에 총체적으로 기능한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성경적 통합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 위한 통합의 우선과제는 그동안 분리해왔던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의 극복에 있다(Holmes, 1983=이승구 역, 1985: 193-194).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의 힘이 학문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창조계의 회복을

일으키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Wolters, 1985=양성만 역, 2007: 100).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문이 성육신한 말씀의 권위 아래로 인도되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고후 10:5)”하는 순종이 먼저 있어야 한다(Spykman, 1992=류호준·심재승 역, 2002: 117). 이것은 학문하는 전 과정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세우는 의식적인 실천 행위인 것이다(양승훈, 2009: 233). 타락으로 인해 파편화된 지식으로 흩어진 각계의 학문의 영역들을 다시 모아 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다(Holmes, 1983=이승구 역, 1985: 193-194). 이처럼 성경의 복음진리와 일반학문의 통합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역에 나타난 구속의 원리를 따르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구현이며(신국원, 2005: 154-155), 이 비전은 현대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창조·타락·구속의 수순으로 현대 심리학을 조명해 보면 그 수순을 그대로 밟는 심리학의 변질과정 볼 수 있다. 동시에 ‘현대 심리학’을 ‘구속’할 수 있는 희망도 발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성경과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중요한 심리적 이해들을 발전시켰다. 이를 “영혼 돌봄”이라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영적 성장에 적용하였다(Johnson, 2007=전요섭 역, 2012: 20-21).²⁾ 그러나 현대 심리학이 등장하면서 “인간본성과 영혼 돌봄”이라는 성경의 자리를 대신하며 “합법적인 접근법”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다. 이에 따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여과되지 않은 이질적인 세속주의가 빠른 속도로 심리학에 침투해 들어가 오늘날 인본주의 토대를 형성하였다(Johnson, 2007=전요섭 역, 2012: 78-86). 세속화된 심리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심리학의 모든 요소들을 성경의 권위 아래, 창조·타락·구속 진리의 구조 위에 놓고 성경의 빛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경적 통합을 이룬 심리학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역의 원리이자 구체적 실현이다(요 4:28-30, 요 8:11, 요 9:3, 막 2:13-17, 눅 23:33-34).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합의 비전은 실제 현장에서 성경적인 분별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일반 심리학은 사람에 대한 묘사와 기술에 강점이 있지만 인간의 근원에 대해 잘못된 견해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을 항상 주목해야 한다(Johnson, 2010=김찬영 역, 2012: 357-358).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학문의 간학문적 경향성을 고려하되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관은 항상 붙잡아야 한다. 성경적 통합의 과정은 기독교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결합이어야 할 것이다(한춘기, 2012: 192). 이처럼 성경적 통합의 과정은 성경의 진리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이 명확한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신중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후 10:5). 이렇게 분별의 채로 걸러진 심리학의 원리나 방법들은 수용하여 성경교수에 유용하게 쓰여야 한다(김용욱, 2011: 66-69). 그 실천을 위해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여 개혁주의 세계관에 근거한 심리학

2) 성경은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 심리학이 태동되기 이전까지 기독교 영혼 돌봄의 역사와 전통에 중요한 지침서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초대교회 당시 가르침과 저술은 거의 전적으로 성경의 교훈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교부들은 성경의 내용으로 교리적인 가르침과 도덕교육을 피하였다. 중세기독교시대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철저히 헌신했다. 교회의 권위를 교황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놓고자 했던 종교개혁가들에게 성경은 그야말로 최종적인 권위가 되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높은 존중심으로 성경이 가르치는바 영혼의 진보를 위해 전착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은 청교도들에게까지 이어져 종교개혁의 영혼 돌봄의 정신을 최정점으로 끌어올렸다. 교회의 역사는 영혼 돌봄에 성경을 사용하는 좋은 역할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다(Johnson, 2007=전요섭 역, 2012: 65-78).

의 주요 연구 분야인 동기이론을 성경적으로 통합해보고자 한다.

3. 동기이론의 성경적 통합: 유아성경교수현장을 중심으로

1) 동기이론과 교수학습

‘동기(Motive)’란 학습자가 배움의 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과정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서 학습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힘이다. 이러한 심리적 힘이 학습상황에서 강하게 작동된 상태를 ‘동기화(Motivation)’된 것으로 본다. 교사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동기가 최적의 상태로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발하며 학습목표를 추구해나간다(이성진 외, 2009: 227; Gerd Theissen, 2003: 341-342). 이렇게 인간 행동을 지속시키는 내면의 힘 또는 의욕·의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동기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왔다(오윤선, 2009: 177-178; 권택조, 2005: 288). 요약하면 동기이론은 목표 지향적 학습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요인들이 최적화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주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교수학습상황에서 동기는 학습행위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기유발과 관계된다. 유형은 외적동기유발과 내적동기유발이 있다(Gerd Theissen, 2003: 342). 외적동기유발은 목표에 따른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고 지속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과정이다.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학습의 주요 척도로 삼는 행동주의의 주요 관심사이다(안영진, 2009: 111). 대표적 학자는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등이 있다. 파블로프는 ‘개의 소화액 분비 실험’에서 도출한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행동의 변화를 설명한다. 스키너는 학습자의 태도와 그 보상으로 경험하는 성취 간 결합에 따라 행동의 능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조건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반두라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으로도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성진 외, 2009: 102-119). 이에 비해 내적동기유발은 인간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사물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전략에 주안점을 두는 인지주의의 학습형태이다(안영진, 2009: 77). 내적동기유발은 3가지 형태가 대표적이다. 우선, 피아제의 인지적 불일치 개념에 의한 문제동기유발로서 적절한 차이경험 또는 모순 경험으로 학습을 일으키고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다음, 결과에 대한 기대를 동기부여 차원으로 끌어올 수 있다. 어떤 학습결과가 도출되어 나오기까지 그 행동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은 자발적 동기유발이다. 학습자 내부의 주체적 결단에 의해 발원하기 때문에 어떤 동기유발보다 능동적 태도를 갖게 한다(Gerd Theissen, 2003=고원석·손성현 역, 2010: 385-386).³⁾

3) 동기유발방법을 정리한 독일의 신학자 타이센은 교수학적 낙관론을 기본정서로 채택하고 있다. 동기유발의 방법과 원리를 차용하여 성경의 내용을 담는다면, 성경을 학문적으로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Gerd Theissen, 2003=고원석·손성현 역, 2010: 431-434). 그는 이러한 접목을 통해 심리학을 형성하는 이론 중 하나를 성경교수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창조적이면서도 대담한 가설을 펼쳐나갔다. 그의 시도는 동기이론의 학습자 이해가 성경교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심리학을 일반은총으로 보면서도 잘못된 적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할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우리의 소심함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도전이 된다. 한편, 그의 낙관론은 인본주의 동기이론의 성경적 구현방법에 대한

이처럼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이루는 하나로서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동기는 교수-학습의 전 과정에서 '흥미'와 연계된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다루어왔다. 흥미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실제(DAP: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로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초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에 동기유발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NAEYC(미국유아교육협회, 1991)는 현대 유아교육심리이론의 토대를 형성한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기본 가정을 논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아는 성인과 다른 유아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며 흥미와 알고자 하는 욕구는 학습을 자극한다고 보았다(NAEYCE, 1997: 9-15). NAEYC & NAECS/SDE(미국유아교육협회와 미교육부유아교육전문가협회, 1991)에서도 유아가 관심 갖는 새로운 물체나 사건, 사람을 소개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제기나 질문을 통해 흥미로 이끌고 있다(NAEYC & NAECS/SDE, 1990: 18). 흥미가 일시적 관심이나 표면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유아가 학습 대상에 지속적으로 몰입되는 통합된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송도선, 2005: 164-165). 이처럼, 흥미는 학습의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는 흥미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탐색한다. 이것은 유아의 발달특징과 이해수준을 반영하여 외적동기유발이나 내적동기유발의 형태로 확연히 드러난다(우연경, 2012: 1180).

성경교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성경교사는 유아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행동을 유지시켜 목표를 성취하도록 끊임없이 성경으로 안내한다. 이 일련의 과정과 역동적으로 유아의 심리적인 기능들이 상호 작용한다(이성진 외, 2009: 18). 이렇게 동기유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경이해를 위해 제시한 감각자료나 실물자료에 의해 유아의 학습지속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아기는 감각운동적이고도 직관적 사고특성으로 인해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학습이 시작된다(정옥분, 2004: 80). 또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인출할 수 있는 기억전략이 갖출렸기 때문에 흥미를 갖고 주의집중하는 시간도 매우 짧다(정옥분, 2004: 326-328). 이러한 이유로 유아들은 학습에 대한 집중도와 심리적 변화 추이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급격하게 나타난다. 성경교사는 상징적인 성경의 모티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감각적 경험이 일어나도록 동기수준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유혜령 외, 2003: 103-105).

이처럼 학습자의 동기를 고양시켜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기이론은 교수방법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관심사로 인식되어 왔다(정종진, 2002: 466). 따라서 대개는 효과적인 교수법과 함께 연구되어왔다. 그만큼 교사는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는데 있어 학습자 주변의 어떠한 사회적 요인보다 유력한 위치에서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Eggen and Kauchak, 2004=신중호 외 역, 2006: 467; 안영진, 2009: 163-164). 앞서 살폈듯이 성경교수 현장에도 그 파급력이 크다. 학습자가 성경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는데 있어 동기부여의 에너지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다(Gerd Theissen, 2003=고원석·손성현 역, 2010: 33-34).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린연령으로 갈수록 동기부여의 화려함 때문에 정작 성경적 이해는 너무나 빈곤하거나 잘못된 결론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도 있는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등하게 통합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러한 방식은 아무리 효과적이고 뛰어난 적용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학습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전인격적인 변화 또한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낙관론을 무조건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타이센이 실제 성경교수 현장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들은 그의 책 382-429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성경교사에게는 학습자의 동기를 활용하는데 있어 성경적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동기부여의 상징과 은유가 성경본문의 맥락이나 중심 주제를 적절하게 담고 있어야 한다(May et al., 2005: 3-10, 강란혜 외 역, 2010: 17-25). 성경의 내용에 충실하되 학습자의 상황과 이해수준 및 발달단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된다(김희자, 2003:102-116 이상욱, 2009: 10-11). 이 과정에서 성경본문이 의도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는지(Richards and Bredfeldt 1998=안영혁·이순옥 역, 2010: 349), 성경의 정확성을 훼손하거나 신학적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는지에 관한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정일웅, 2011: 337-370). 그 가운데서도 성경교수에서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동기이론에 대한 성경적 조명과 통합적인 안목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동기이론의 성경적 통합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있는 존귀하고 독특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안에 ‘지(知), 정(情), 의(意)’라는 특징으로서 총체적으로 입혀져 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 작동하는 인간의 올바른 기능성”을 의미한다(Hoekema, 1986, 류호준 역, 1990: 126-128).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며 그 방향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Walsh and Middleton, 1984=황영철, 1987: 109). 성경교사는 학습자 안에 내재된 ‘지정의’의 모든 성품들이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성을 지니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질서에 다시금 반응하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도록 말이다(김성수, 2013: 15).

성경적 가치관에 통합된 동기이론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조화시키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이것은 동기이론이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온전케 세우고 변화시키는 성경교수의 목적(Richards and Bredfeldt 1998= 안영혁·이순옥 역, 2010: 171-172)에 충실한 도구로 거듭나야함을 의미한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안에서 학습자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기’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관점을 이해하고 그 관점을 창조·타락·구속의 맥락에서 풀어봄으로서 통합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

인간의 동기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 여기서 인간의 복잡한 행동 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한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것이라는 점이다(히 4:12; Hoekema, 1986, 류호준 역, 1990: 136-137; Powlison, 1995: 35). 인간의 동기 자체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입히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고 선한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욕구충족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점령해 버린다(창 4:7, 롬 8:4-5, 눅 6:45; Hoekema, 1986=류호준 역, 1990: 148-149; 김준수, 2012: 124-125). 이는 우리 마음이 선택하는 바, 믿음을 따르느냐 아니면 본능을 따르느냐 혹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느냐(갈 5:17)와 관계된다(Crabb, 1975=전요섭 역, 1995: 69-72). 동기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분명하다. 자아의 동기를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봉사하든지 아니면 우상에 대한 경배로 봉사하든지 둘 중 하나이며 결코 중립적인 영역은 없다(Wolters, 1985=양성만,

1992: 101; 김성수, 2013: 17). 이처럼 성경에서 인간 행동동기에 관해 묻는 질문은 곧 마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인가를 묻는 질문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Hoekema, 1986, 류호준 역, 1990: 148-149; Powlison, 1995: 35, 갈 5:16-24, 엡 2:3, 4:22, 뱀전 2:11, 요일 2:16, 약 1: 14-15).

성경적으로 통합된 동기는 전인적이며 총체적인 존재인 인간을 전제한다. 이것은 인간의 변화가 영적인 변화까지 포괄하는 총체성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엡 4:22-24, 김성수, 2013: 18). 따라서 올바른 방향의 동기유발이란 학습자의 내적인 동기유발을 넘어선다. 현실적 욕구충족에 몰입하는 학습자들의 눈을 들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골 3:1-2, Walsh and Middleton, 1984=황영철, 1987: 110; 김준수, 2010: 118-119). 욕구의 방향이 자아에서 하나님께로 육체에서 영적인 세계로 바뀌지 않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는 성경적 의미의 변화라고 할 수 없다. 성경적으로 통합된 동기는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에 진정으로 동기화 되는 것이다(마 6:33, 마 13:33, 눅 6:35, 고전 10:33, 갈 2:20, 갈 6:9, 빌 3:12 요일 2:15-17). 성경의 세계로 발 돌음 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고차원적인 의도에서의 동기유발인 것이다.

지금까지 동기에 대한 성경적 조명을 통해 현대 심리학에 토대를 둔 동기이론의 전반적인 세계관을 알 수 있다. 동기이론을 현대 심리학의 구조에 놓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행동주의나 인지주의 등으로 구성되는 동기이론은 각각 인간의 내적능력에 대한 전적인 가능성과 신뢰 그리고 환경이 인간의 육체를 조작한다는 신념에 기반한다. 두 이론 모두 영적 존재로서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현세에서 인간 지상의 인본주의적이며 기계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창 1:27)는 성경적 인간관과는 근본적으로 대치된다. 이러한 인간관의 차이는 연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도, 창조 이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도 설명하지 못한다. 환경의 조작을 뛰어 넘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변화되는 이유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책임 있는 존재로 반응하는 자유의지도 풀어내지 못한다(Nobel, 1991=정희영 편저, 2014: 93-95; 김선요, 2004: 126). 무엇보다 삶의 가치를 개인의 안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적인 비전에 둔다는 것을 해석하기 어렵다.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성경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세계관 모두 동일하게 인간의 변화를 다룬다. 각각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학습이 일어난 상태의 능동적 인간’이다. 또한 이들 인간이해 속에는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창조·타락·구속의 과정’과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내적 몰입의 과정’으로 대비된다. 두 세계관이 공유하는 ‘변화’와 ‘지향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차이가 난다. 성경의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공동체적 변화와 소명으로 나아오게 한다. 동기이론은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에 몰입하여 욕구 충족에 집착하도록 만든다. 성경의 세계관은 그 방향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지만 동기이론 인간 내면과 자아의 욕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동기이론의 성경적 통합은 동기이론을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위에 놓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것은 동기의 방향을 인간 내부에서 하나님께로 돌림으로서 시작된다. 성경적 의미의 동기화는 인간 동기에 내재한 지속력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열심에 일치시킨다.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이 땅의 목표, 보상에는 만족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맡겨진 소임에 충실하도록 한다(딤후 7:8, 마 25:21; Grudem, 1994=노진준 역(하), 2009: 385-389). 인간에게 부여하신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에 동기화된 능동적인 학습자로 자라게 한다(Carter and Narramore, 1979=전요섭 역, 1997: 85-87, 마 13:31-32, 13:44-46, 25:1-13, 25:14-30). 이처럼 성경의 빛 가운데 분별하여 드러낸 동기를 창조 질서에 부합하게 사용할 때 동기이론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Wolters, 1985=양성만, 1992: 143). 성경교사는 동기이론을 성경적 구조 위에 세우는 자들이다. 따라서 성경교수의 전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실존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찾아가도록 안내해야 한다(김선요, 2004: 137). 이는 곧 성육신 원리가 개인의 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과정을 이끌어주시는 참된 교사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동기화된 완벽한 모델이다(Erikson, 1983=현재규 역, 2000: 358-362; 마 4:17, 눅 4:18-19, 히 12:2).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6)” 친히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손수 지으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동기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셨다(Swindoll, 2008=윤종석 역, 2009: 299).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을 정점으로 사탄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를 확신케 한다(Grudem, 1994=노진준 역(중), 2009: 34-35). 특히,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자된 삶으로의 소명을 분명히 드러낸다(주성준, 2000: 383, 396). 사탄은 예수님께 ‘고난 없는 영광의 길’로 가도록 육체적(눅 4:3), 영적(눅 4:7), 정신적(눅 4:9)인 영역을 아우르는 전인격에 걸쳐 유혹 해 온다. 하나님을 향한 동기의 방향을 나에게로 돌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치명적인 시험이었다(주성준, 2000: 385). 그 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물리치셨다(눅 4:4, 8, 12),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위한 믿음의 자세로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구체적 방법과 실재를 제시하셨다.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모본이 되어 주셨다(Grudem, 1994=노진준 역(중), 2009: 33-34).

3) 동기이론의 성경적 적용

성경교사는 동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실제 성경교수방법에 적용해야 한다. 이때, 인간심리를 이용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체계를 구축한 교수-학습이론들의 원리나 방법들을 선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동기부여에 사용한 상징과 은유가 성경의 주제를 잘 담고 있는지, 학습자의 발달 정도와 이해수준을 고려하되 성경본문의 의도에 충실했는지, 성경의 정확성을 훼손하거나 신학적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는지를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동기의 성경적 의미가 성경교수 과정에서 온당하게 실현되었는지도 평가해야 할 것이다.

활동의 실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성육신적 사역을 모델로 할 수 있다. 특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 고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구현하는데 행동주의 교수방법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구조화된 학습이 처음 이루어지는 유아기에는 아무런 내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교수현장에 놓인다. 따라서 시작은 그리스도를 닮는 태도와 습관형성 및 자아형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외적동기유발에 의한 흥미형성이 더 긍정적이다(Habermas and Issler, 1992=김성웅 역, 1997:

395-396). 구체적으로 현재 필요와 경험을 연결시키고 조건학습의 강화와 보상을 사용하며 교사의 본보기 및 모델링을 통한 관찰학습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Gangel, Hendricks etc., 1990=유명복·홍미경, 2005: 365, Richards and Bredfeldt 1998=안영혁·이순옥 역, 2010: 350-352),

가령, 학기 초 적응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교수 현장에 들어오기를 두려워하는 유아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대개는 유아가 단계적으로 접근해오게 하는 ‘행동형성법’을 사용한다. 또한 일정간격으로 달라트 표식을 붙여 동기부여하는 ‘강화제’를 쓰기도 한다. 이때 강화제로서 성경교수현장을 향해 올수록 순차적으로 성경메시지를 붙일 수 있다. 성경말씀 선정은 명확한 신학적 개념과 기준을 따르되 유아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리차즈(Richards)와 브렛펠트(Bredfeldt)는 유아기에 배워야 할 기초적인 신학적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 개념 그리고 죄의 개념, 성경의 목적과 용도, 창조와 세계의 근원과 원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Richards and Bredfeldt 1998=안영혁·이순옥 역, 2010: 396-397). 또한 하버마스(Habermas)와 이슬러(Issler)는 어린이에게는 단순 주입식이 공부를 피하고 어려운 성경의 단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Habermas and Issler, 1992=김성웅 역, 1997: 424). 다음은 이러한 지침들에 따라 성경 메시지를 정선하여 유아의 상황과 이해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 ○○야,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아버지란다(창1:27)
- 나는 너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시편139:1).
- 목자가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하듯이,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해 왔단다(시편23:1-2).
-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란다(요한일서 4:16).
-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난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단다(고린도후서 1:3-4).
- 그리고 내 아들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어(요한복음3:16).
- 예수님은 내가 오는 것을 기뻐한단다(마가복음10:14).
- 너를 꼭 안고 축복해주길 기다리고 계신단다(마가복음 10:16)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 놓인 유아를 실제로 지도하는 가운데 성경교수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유아는 성경교수현장에 도착하여 날마다 성경메시지를 하나씩 경험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성경교수현장과 친숙해진다. 성경말씀은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아가 다음 단계의 말씀으로 호기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한다. 자기 자신을 향하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내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호기심을 갖고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도착점 행동’인 성경교수현장에 들어선 날 성경교사는 아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진심으로 꼭 안아줄 수 있다. 이 때 성경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유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령의 도구로서 사용된다(엡 4:11-13). 또한, 참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학습자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요 16:13, 롬 8:24-26).

제시한 성경 메시지로 유아를 동기유발 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책임자”이자 “은혜로운 조력자”로서 교사의 긴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김선옥, 2004: 132). 유아는 결코 성경교수 현장에 혼자 들어올 수 없으며 혼자 힘으로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성경교사는 절대 의존적인 유아가 교사와의 관

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를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말씀을 매개로 한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어 유아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Habermas and Issler, 1992=김성웅 역, 1997: 396-398). 사전에 그날의 성경메시지에 대해 충분히 묵상하고 연구하여 본문의 의도가 유아지도상황에서 분명히 살아날 수 있도록 교수방법을 연구해야한다. 이에 대해 헤이스테드(Haystead)가 제시한 성경의 진리를 어린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성경교사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다. 즉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초점 맞추기, 직접적인 경험 제공하기, 학습기회 마련하기,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대화하기, 활동에 연관된 질문하기, 질문에 답하기 등이 있다(Haystead, 1989: 16-17). 각 단계의 성경 메시지 하나씩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가르치되 이러한 교수방법들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성경교수현장으로 이끌 수 있다.

이처럼 성경교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각 학습자에 맞는 개별 접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적 교수방법을 연구해야 한다(Gangel, Hendricks etc., 1990=유명복·홍미경, 2005: 34-42). 제시한 실재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의 환경적 정서적 상황을 고려한 개별화된 성경교수이다. 이해를 위한 하나의 예시로서 고정된 형식이 아니다. 성경말씀은 아이의 신앙정도나 정서 상태에 따라 신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내용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성경교사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지만,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갖는 한계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영적인 능력인 성령의 조명을 따라가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된 인지구조로 심원한 하나님의 세계인 성경의 진리를 다 답할 수 없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측량하는 것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Grudem, 1994=노진준 역(하), 2009: 203-204). 그러므로 성경교사는 실제 성경교수현장에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허한 진리와 마주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눅 4:1). 가르치고 전파하는 공생애 전 기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은 계속되었다(행 10:38).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신앙과 학문도 성령님의 통치 아래 굴복해야 한다(Gangel, Hendricks etc., 1990=유명복·홍미경, 2005: 120).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억하며(요일 4:9).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전인격적이고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이 가르침에 모든 동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개혁주의 세계관은 창조·타락·구속 진리의 성경의 진리를 따르며, 이 진리는 궁극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 걸친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총과 일반은총이 만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구속사역은 창조·타락·구속 진리의 정점으로서,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일반학문인 심리학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성경교수 현장에서 심리학의 주요이론인 동기이론을 성경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성경교수에서 동기이론의 성경적 통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특별한총으로서 성경으로 구속시킨 동기이론을 일반은총인 심리학의 방법론을 선용하여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의 과정에서 성경

적 검증절차를 거친 후 성경교수현장에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 모델은 참된 교사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역이다. 이처럼 본래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안에 있었던 것이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굴절되고 비틀어진 현대 심리학을 심리학 본래의 영역인 성경의 세계관으로 침투해 들어감으로서 창조의 새역사로 회복시키는 것이(Wolters, 1985=양성만 역, 2007: 85-87) 오늘날 성경교수에 있어 중요한 사명일 것이다.

성경교수의 사명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교회교육의 현실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 교회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경교사의 역량강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함영주 외, 2015: 212). 성경교사는 “교수학습능력”, “학생에 대한 이해”, “신학 및 교리에 대한 이해” 등 종합적인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그 실천방안으로 “성경과 기독교교리 교육의 강화를 통한 교수-학습 역량의 강화”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함영주 외, 2015: 188-189). 본 연구보고는 한국교회를 살릴 과제 중 하나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음세대를 일으킬 교수학습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일이 중요한 사안임을 가리키고 있다. 에스텝(Estep)도 성경적 통합의 실천원리로 성경교사는 자신의 신학적 확신을 교육적 상황 속에서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는 일로 향하도록 동기부여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Estep, 2008: 42).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길러내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결국 성경교수의 사명에 부연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은 기독교 안에 밀려오는 세속화의 흐름을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엡 4:20-24). 지금 성경교수현장에는 말씀의 기초 위에 건실하게 서 있는 교수학습전문가가 필요하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되 이 흐름을 역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세상의 자원들을 복음전파의 도구로 사용하는 가치를 발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말이다.

참고문헌

- 강진구 (2014). “긍정심리에 관한 기독교 세계관적 이해.” 『기독교학문학회』 . 31. 1-16.
- 권택조 (2005). 『기독교교육심리학』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선요 (2004). “현대 교육의 교수-학습 원리에 대한 성경적 비판과 해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 11. 121-139.
- 김정훈 (2001). “도예베르트의 인간관 이해.” 『진리논단』 . 6. 19-41.
- 김준수 (2010). “인간동기의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적 이해.” 『복음과 상담』 . 18. 106-130.
- 김용욱 (2011). “성육신 원리에 근거한 성경과 심리학의 대화.” 『총신대학교박사학위논문』 .
- 김희자 (2003). 『정보화 시대의 기독교 어린이 교육』 .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송도선 (2005). “듀이의 아동 중심 교육의 진의.” 『교육사상연구』 . 16. 147-167.
- 신국원 (2002). “다원주의 내의 기독교 학문의 정체성.” 『21세기와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대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논문집』 .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 _____ (2005). 『니고데모의 안경』 . 서울: IVP.
- 안영진 (2009). 『교육심리학』 . 서울: 정민사.

- 안석모 외 (2009). 『목회상담 이론 입문』. 서울: 학지사.
- 양승훈 (2009).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서울: CUP.
- 오운선 (2009).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예영.
- 오인택 (2002). “한국 기독교교육학 연구사.” 『기독교교육논총』. 8. 43-127.
- 우연경 (2012). “흥미 연구의 현재와 향후 연구.” 『교육심리연구』. 26(4). 1179-1199.
- 유희령·강은희·박지영 (2003). 『유아 교수공학과 교수·학습 방법』. 서울: 창지사.
- 윤화석 (2008). “기초화 이론에 기반한 성경교수법의 이해.” 『성경과 신학』. 48. 128-151.
- 이관직 (2003).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기독교 심리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이돈하 (2012). “*Critical Contextualization of John Dewey’s Educational Philosophy.*” 『개혁논총』. 23. 163-209.
- 이상욱 (2009). 『21세기 기독교전인유아교육』. 광주: 교문사.
- 이성진 외 (2009). 『교육심리학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 정옥분 (2004). 『영유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일웅 (2011). 『교회교육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정종진 (1992). “교실수업에서의 동기유발을 위한 방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내부적 요인을 중심으로.” 『대구교육대학교논문집』. 27. 461-495.
- 정희영 (2011).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근·현대 교육사조』. 서울: 그리심.
- 주성준 (2000).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한 이해: 누가복음 4:1-13을 중심으로.” 『총신대 논총』. 19. 352-386.
- 최용준 (2005). “헤르만 도예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손봉호 외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IVP. 37-66.
- _____ (2014). “과학과 신학의 관계: 네 가지 유형 및 도예베르트의 대안적 고찰.” 『신앙과 학문』. 19(3). 185-212.
- 함춘기 (2012). “21세기 한국복음주의 기독교교육의 간학문적 이해.” 『복음과 교육』. 12. 173-194.
- 함영주 (2011). “기독교교육학에 있어서 신학과 사회과학의 통합문제: 개혁주의 신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음과 교육』. 9. 71-96.
- _____·신승범·이현철·전병철·조철현 (2015). “2015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연구보고서: 한국교회교육의 현실분석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통합연구.” 『한국복음주의신학회·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 Adams, Jay. E. (1970).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Zondervan. 정정숙 역 (1985). 『목회 상담학』. 서울: 세종문화사.
- Berkhof, Louis (1941).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권수경·이상원 역 (2006). 『조직신학』. 광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Bobgan, Martin and Bobgan, Deidre (1985). *How to Counsel from Scripture*.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전요섭 역 (2008). 『영혼치료상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Carter, John D. and Narramore, Bruce. (1979). *The Intergration of Psychology and*

-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Corporation. 전요섭 역 (1997).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갈등』 (1997). 서울: 하늘사다리.
- Collins, Gary R. (1981). *Psychology &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Nashville: Abindon. 이종일 역 (1992).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전망』. 서울: 솔로몬.
- Crabb, Jr., Lawrence J. (1975) *Basic P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전요섭 역 (1995). 『성경적 상담학 개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 _____ (1977).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 Eggen, Paul and Kauchak, Don (2004). *Educational Psychology: Windows on Classrooms*. NJ: Prentice Hall. 신중호 외 역(2006). 『교육심리학: 교육 실체를 보는 창』. 서울: 학지사.
- Estep Jr., James. R., Anthony Michael J., and Allison, Gregg R. (2008).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 Tennessee Nashville: B & H.
- Erickson, Millard J. (1983).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s. 현재규 역 (2000). 『복음주의 조직신학(중): 인간론·기독교론』. 파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Gangel, Kenneth O., Hendricks Howard G. etc. (1990). *The Christian Educator's Handbook on Teaching*. Timothy Publishing House. 유명복·홍미경 역 (2005). 『교수법 베이직』. 서울: 디모데.
- Green, Albert E. (1995).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Association of Chrisian Schools International*. 현은자·정희영·황보영란 역 (2000).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서울: CUP.
- Gerd Theissen (2003). *Zur Bibel motivieren*. Gütersloher Verlagshaus. 고원석·손성현 역 (2010). 『성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열린 성서 학습의 길』. 서울: 동연.
- Grudem, Wayne A. (1994).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the Biblical Doctrine*. England: Inter Varsity Press. 노진준 역 (2009). 『조직신학-상·하』. 서울: 은성.
- Habermas, Ronald and Issler, Klaus (1992). *Teaching for Reconciliation: Foundations and practice of Christian Educational Ministry*.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김성웅 역 (1997). 『화목을 위한 가르침』. 서울: 디모데.
- Haystead, Wes. (1989).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teaching young children: Birth-6 years*. Ventura: Calif: Gospel Light.
- Hoekema, Anthony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Eerdmans Publishing Company. 류호준 역 (1990). 『개혁신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Holmes, Arthur F. (1983). *Contours of a world view*.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이승구 역 (1985). 『기독교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 Johnson, Eric L. (2007). *Foundation for Soul Care*. England: Inter Varsity Press. 전요섭 외 역. (2012). 『기독교 심리학』. 서울: CLC.
- _____ et al..(2010).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2nd ed.). England: Inter Varsity Press. 김찬영 역 (2012).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 서울: 부흥과개

- 역사.
- Jones, Stanton L. and Butman, Richard E. (1991).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IVP Academic. (2nd ed.). 이관직 역 (2009). 『현대 심리치료와 기독교적 평가』. 도서출판 대서.
- May, Scottie. Posterski, Beth. Stonehouse, Catherine and Cannell, Linda (2005). *Children Matter: Celebrating Their Place in the Church, Family, and Communit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강란혜 외 역 (2010).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린이로!』. 서울: 창지사.
- Noebel, David A. (1991). *Understanding The Times: the Religious Worldviews of Our Day and the Search for Truth*. Harvest House. 정희영 편저 (2014). 『그리스도인의 세상 바로보기: 철학·심리학』.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 Powlison, David (1995). Idols of Heart and “Vanity Fai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3(2). 35-50.
- Richards, Lawrence O. and Bredfeldt, Gary J. (1998). *Creative Bible Teaching*. Chicago: Moody Publishers. 안영혁·이순옥 역 (2010). 『창조적 성경교수법』. 서울: 그리스.
- Harris, Robert A. (2004). *The Inter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Wiph and Stock Publishers. 최용준 역 (2013). 『신앙과 학문의 통합-세계관적 접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NAEYC (199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revised edition.”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9-15.
- NAEYC & NAECS/SDE (1990). “Guidelines for appropriate curriculum content and assessment in programs serving children age 3 through 8.”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21.
- Spykman, Gordon J. (1992). *Reformational Theology: a New Paradigm for Doing Dogmatic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류호준·심재승 역 (2002). 『개혁주의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Swindoll, Charles R. (2008). *Jesus: The Greatest Life of All*.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윤종석 역. (2009). 『예수, 가장 위대한 생애』. 서울: 디모데.
- Van Til, Cornelius (1971).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이승구 역 (1999). 『개혁주의 신학 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Walsh, Brian and Middleton, J. Richard (1984). *The Transforming vision :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IntervarsityPress. 황영철 역 (1987).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IVP.
- Wolters, Albert M. (1985). *Creation Regained : Bibil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ldview*.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양성만 역 (1992). 『창조·타락·구속』. 서울: IVP.